

진안군, 내년 예산안 5624억원 편성

전년 대비 193억원 증가… 경제활력·민생안정 방점

진안군은 26일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3억 원(3.56%) 증가한 총 5,62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진안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4,914억 원, 특별회계는 182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기반사업,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특히 군은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현장 소통을 통해 과악한 군민의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25억원, △2026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 11억원,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 14억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3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3억 5000만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26억원, △

행복콜버스 지원 14억5000만원, 스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19억8000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환경 26.73%, 농림해양수산 14%, 교통 및 물류 11.71%, 문화 및 관광 7.31%, 사회복지 4.92% 등에서 증액 편성됐다.

전총성 군수는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을 발현시킬 성장동력사업과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은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26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인호영 의원실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을 방문했다.(사진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총력

황인홍 무주군수, 국회 방문 현안사업 지원 강력 피력

무주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황인홍 군수가 국회 안호영 의원실을 비롯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을 방문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문화예산과 등을 찾아 면담을 가지는 등 무주군의 미래가 달린 주요 사업들의 지원을 강력히 꾀력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역 현안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라며 적극적

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4년 연속 최우수상

높은 전문성·실력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2024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장수군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읍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북도 내 14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산불지상진화 실력을 겨뤘다.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실제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한 경연을 통해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장비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시군 간 정보교류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2024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장수군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수군은 수원 확보, 중형펌프 설치, 물 공급, 그리고 진화 활동까지 전 과정에서 경과시간을 최대로 단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선보였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군 진화대의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중부 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하주)는 26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 철도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채택·의결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 철도 노선은 시설품종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지역노선이 있으며, 중부 철도노선 구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멸 대응과 장수군 발전의 돌파구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장수군이 건의한 중부 철도노선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서-무주소방서,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약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와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5일 무주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소방 재난대응 긴급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날로 증가하는 자살 기도자, 치매노인 수색 및 재난·안전 등 긴급신고 유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무주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방재전기 활용,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관 간 재난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한층 더로의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과 소방은 재난현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 이는 재해·재난·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경찰-소방의 선제적 대응 의지를 확고히 하는 부분이다.



이에 협장통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긴급신고 공동대응에 관한 협의,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각종 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과 재해·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협동훈련을 실시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이ul,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시 상호 협약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는 한편 긴급연락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신속·정확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 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친환경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소방서, 겨울철 전기

화재 예방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26일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전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특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76건(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51건(20%)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으로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합선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안전 인증(KC마크) 및 누전기 확인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겨울철에는 난방 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통제

진안군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마이산 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구간이 26일부터 동절기 입산 통제에 들어간다.

군은 암마이봉의 지형적 특성과 겨울철 등산로 결빙으로 인한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동절기에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암마이봉 통제구간은 천왕문에서 암마이봉 정상(0.6Km) 구간과 봉두봉에서 암마이봉(0.9Km) 구간 두 곳으로 천왕문, 봉두봉 방면 2개의 출입구가 통제되며 내년 3월 중순 개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암마이봉 텁방로는 지형의 특성상 미끄러운 구간이 많아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